

2022년 9월 시앰립 선교 편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조국과 고향에 계신 선교 동역자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은혜와 평안 가운데 생활하고 또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코로나기간이 지나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이전과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휴양지나 관광지와는 다르게 아직도 시앰립으로는 한국 비행기가 직항으로 다니지 못하고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해서 교민사회가 시름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인교포인 교회식구들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한가정은 한국으로 나가고, 한 가정은 프놈펜 수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보면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라져 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후유증과 같은 어려움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교사 뿐 아니라 현지의 동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삶과 생활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지난 전반기에 망고숲지역아동센터를 개원하고 주중사역과 주일사역을 병행하게 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4월부터는 시앰립한글학교 교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아주 벅찬 기쁨 속에 혼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것은 그동안 많이 요청하고 기도했던 동역자들을 보내달라던 기도제목대로, 하나 둘씩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단기선교사로 나오는 것, 장기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아는 저희로서는 기도는 하였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7월에는 한인어린이예배도 새롭게 신설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역을 놓고 보았을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한인예배 처소의 안정화입니다. 한인예배 처소가 지금은 임대를 통해 지난 9년 동안 잘 지내왔는데, 재계약이 1년 남은 이 시점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재고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재계약이 쉽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임대를 다시 하는 것도 사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으로 보았을 때,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선교지 한인교회로서 사역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정리되어 질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한인선교 뿐 아니라 현지인 선교의 베이스캠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주제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망고숲지역아동센터 사역과 시앰립한글학교 사역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자녀(MK)들, 교민자녀들,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섬기는 기쁜 사역의 현장이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과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시를 바라고, 막내 건강검진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2022.9.26. (월) 오후
인도차이나 소망의 땅 캄보디아에서,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임창무 정윤영 하은 하람 하민 선교사가족 올림

<선교 기도제목>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16)

1. 순종의 훈련(묵상, 성경통독)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선교사역 되기를
2.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며 나와 같은 한 명의 목사, 선교사가 양육되도록
3. 선교4년차로서 저희 부부와 자녀들(하은, 하람, 하민)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언어(크마에어, 영어)의 진보를 주소서
4. 후원교회(안동교회 외)와 시엠립한인장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지역복음화와 세계선교, 다음세대 지도자 양육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되도록
5. 어린이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특별히 망고슌지역아동센터, 시엠립한글학교, 다문화사역 등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것(동역자, 재정)이 채워지도록
6.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과 기타 학교공부, 언어교육, 또래관계가 잘 되어 가도록
7. 교회임대재계약, 시엠립참빛교회와의 한인교회연합을 통한 한인예배 및 교회학교 부흥
8. 동역자들을 보내주소서. 협력선교사, 단기선교사와 견습선교사, 교사(현지인, 한인) 등
9. 막내 하민이 한국 진료 차질 없이 진행되고, 남편의 방아쇠수지증후군과 발목인대손상, 그리고 아내선교사의 목과 허리 디스크 치료가 원활히 되도록
10. 추후에 NGO비자가 잘 연결되고, 좋은 체류여건이 확보될 수 있기를

<교회소개>

현재 섬기고 있는 **시엠립한인장로교회**는 캄보디아 시엠립 시내에 소재한 한인장로교회로서 지역복음화, 세계선교, 다음세대지도자양육을 주된 목표로 하여 한국교민들과 선교사네트워크를 통해 캄보디아 2세대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 표 어 :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엡 4:3, 요17:21)
- 목 표 : 1. 은혜가 충만한 예배 2. 진리로 배우는 교육 3. 사랑이 넘치는 교제
4. 순종으로 행하는 선교 5.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

<현재 및 향후사역>

- 1) 한인예배 2) 현지인어린이예배 3) 지역아동센터(공부방) 4) 한글학교 5) 성경통독
- 6) NGO사역 7) 신학선교세미나 8) 어린이도서관 9) 다문화예배 및 모자시설

<연락처>

- 1) 한국: 임창무 010-9613-1251
- 2) e-mail&SNS: lcm4247@hanmail.net / 카톡ID lcm4247 (임창무)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pxawtj (시엠립한인장로교회)
- 3) 전화번호: (한국) 070-7574-3240 / (855) 087-751-024. (855) 077-709-430
- 4) 주소: No. 212 Sala Kanseng Village, Svay dangkum Commune, Siem Reap, Cambodia
- 5) 우체국사서함: P.O.Box 93149 Siem Reap Angkor Cambodia

*카카오채널로 선교편지와 선교지소식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채널에서 '**시엠립한인장로교회**'를 친구로 추가해 주세요.

예) 카카오톡>검색>'시엠립한인장로교회' 검색>채널추가>소식받기 설정

